



군산시는 서울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지역 활력 제고 및 확장적 재정운영을 위한 실천전략회의에 참석하여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군산시, 취업보호계층 생계안정·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군산시는 저소득층 실업계층에 안정적인 공공일자리를 제공해 취업보호계층의 생계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2019년 상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 22명을 모집한다.

참여 자격은 근로능력이 있는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인 군산시 민으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이면서 재산이 2억원 이하인 사람으로, 특히 청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지원자는 가구소득에 관계없이 청년직업대상사업 선발인원 범위 이내 우선 선발한다.

단, 1세대 2인 참여자, 접수 시작일 이후 재정지원 전일제 일자리사업 참여자 또는 중도 포기한

자,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자,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방 건강계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등은 참여가 배제된다.

기본 근로조건은 만 65세 미만 1일 6시간(주 5일 총 30시간) 근무에 월 평균 125만원 정도의 임금을 받게 된다.

사업 참여 희망자는 신분증 등을 지참해 관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홈페이지(www.gunsan.go.kr)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군산시 일자리담당관(☎454-4364)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김정훈 기자

우수사례로 군산시 성과·비전 공유

시, 지역 활력 제고·확장적 재정운영 실천전략회의 참석

군산시(시장 강임준)는 17일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지역 활력 제고 및 확장적 재정운영을 위한 실천전략회의'에 참석하여 우수사례를 발표해 군산시의 성과와 비전을 공유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확장적 재정운영과 관련된 중앙정부의 정책 기조 및 지침을 시달하기 위해 개최된 이날 회의에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등 중앙부처 주요인사와 전국 시도 부단체장 및 전국 예산담당과장

들이 참석했다.

군산시는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가 전국 243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방재정 지출확대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2억원의 재정적 지원을 받음에 따라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우수사례를 발표하게 됐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강임준 군산시장은 추경 및 신속집행 추진계획과 함께 군산형 골목상권 활성화 대표 사업인 '군산사랑상품권', '찾아가는 동네문화카페', 미래 신산업인 '시민

태양광 발전소 사업' 등을 소개해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한 전국 지자체 참석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군산시는 지난해 고용 및 산업위기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군산사랑상품권 발행, 거주지 골목상권 소비지원, 찾아가는 동네문화카페 등과 같은 새로운 정책들을 성공적으로 안착시켜 전국적인 관심을 모았다.

특히 정부에서는 군산사랑상품권 발행 4개월 만에 910억원 발행 및 전액 판매라는 유례없는 성과를 낸 군산시를 모범사례로 선정하여 전국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했으며, 소비

창출 고용유지 등의 선순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2022년까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최대 8조원으로 늘리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시민들의 관심과 성원 덕분에 군산에서 추진 중인 지역주도형 활성화 사업이 전국적인 성공 모델로 인정받게 됐다"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익산시의회 보건위원회 의정활동

익산시의회가 현장 의정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17일 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익산보건소 내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방문, 운영현황과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시민이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벗고 질환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다짐했다.

편안한 환경에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직원들의 노력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한편 익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만성정신질환자들의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주간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김재훈 기자

익산시, 저소득층 경제적 부담 완화 기저귀 지원사업 전개

익산시는 저소득층 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을 전개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 해당하는 만 24개월 미만 영유아 가정이다.

산모가 질병(에이즈,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뇌하수체 기능저하증) 또는 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거나 조손가정, 아동복지시설 입소 영유아는 조제분유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은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할 수 있다.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할 경우 24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주민등록등본(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진단서(조제분유 신청시)를 구비해 보건소 모자보건실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하면 된다.

지원 대상으로 확정되면 기저귀(월 6만4000원), 조제분유(월 8만6000원) 지원금이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되며 결제 가능한 유통점에서 구매할 수 있다.

시는 또 법정 출생신고기간이 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인 점을 고려해 2018년 1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

일 사이 태어난 출생아 가구에는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 아닌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중위소득 40% 이하 가구로 4인가구 기준 직장가입자 5만6834원이하, 지역가입자 1만3100원이하)에게도 기저귀·조제분유를 지원한다.

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오는 2월 28일까지 보건소 모자보건실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아이 낳고 기르는 일이 행복이 되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군산시보건소, 어린이 아토피 예방관리 사업 운영

군산시 보건소(소장 정형태)는 식생활과 사회환경의 변화로 인해 아토피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아토피 등록 대상을 만 12세에서 만 18세로 확대하고 취약계층 아동 의료비 지원 등 보건 의료 서비스 제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기초중위소득 100% 이하 관내 주소지를 둔 취약계층 가정이 피부과 의원, 한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아토피 피부부염 진단을 받고 검사 및 치

료비 등 본인부담금을 보건소에 청구할 경우 1인당 월 10만원, 연간 50만원까지 최대 5년간 지원해 아토피 환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지난해 101명에게 10,387천원의 의료비를 지원해 아토피 환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왔으며, 아토피 예방관리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은 시 보건소 진료계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시보건소,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확대

군산시 보건소는 질병의 조기 발견과 치료체계를 강화하고 백세건강시대 대비하기 위해 무의도서 등 의료취약지에 담당주치의가 찾아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확대 운영한다.

경로당 50개소를 대상으로 연 1회, 의료기관이 없는 5개 도서를 대상으로 의료취약지역 경로당 65개소를 선

정해 동 지역은 연 2회, 읍·면지역은 보건지소 당 3개소를 선정하여 월 1회 한방 진료 및 내과 건강 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방·내과 진료 및 증상별 투약, 계절별 건강관리와 비상상비약을 제공하여 의료취약지역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군산=김정훈 기자

행안부 주관 찾아가는 지방세 직무교육 익산서 개최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찾아가는 지방세 직무교육'이 익산시에서 개최됐다.

17일과 18일 익산 웨스턴다이프 호텔에서 진행되는 이번 직무교육에는 광주, 전남·북, 제주권 지방자치단체 소속 지방세 업무 담당자 180여명이 참여한다.

교육은 지방세 4법 개정내용, 유권해석 등의 내용으로 전개돼 지방세 담당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를 도모한다.

행정안전부 근무경력에 있는 정현을 시장은 교육을 위해 지역을 찾은 전라권역 지방세 담당공무원들을 맞이하며 자긍심 고취를 주문했다.

/김재훈 기자

우리가족 면역을 생각한 NK프로젝트

N·1

엔·원

산학 공동연구 프로젝트
☑ NK 프로젝트 N·1
 연세대학교 임상영양연구소 이종호 교수 연구팀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이평원 교수 연구팀

특허받은 유산균으로 만든 기능성 발효유
☑ NK프로젝트 N·1
 • nF1 + 카제이균 + 비피더스 유산균 함유

☑ N·1이 NK세포에 주목합니다.

푸르밀 NK프로젝트 홍보대사 하지원